

대전광역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에 터한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요구조사

양선주*, 김소연**, 이규너***

<국문초록>

이 연구는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른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학 결정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의 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시기의 진로 상담은 성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 소질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연계하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 상담이 주로 담임교사와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담임교사의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이를 분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의 확충,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계열에 따른 진로 상담에 대한 요구를 토대로 상담 내용, 상담 방법, 상담 형태 등을 달리하여 계열의 성격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특성화고, 진로 상담, 진로, 상담

* 충남대학교

** 교신저자 : 김소연(kimsy@cnu.ac.kr), 충남대학교, 042-821-5892

*** 교신저자 : 이규너(knlee@cnu.ac.kr), 충남대학교, 042-821-76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문제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나 청소년기는 자신의 흥미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가 합리적인 진로선택이다(김병숙, 손민아, 2005).

고등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이나 장래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 흥미나 능력 이외에도 가정 경제나 취업 기회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들까지 고려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거나 장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주인 요인과 객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체계화할 수 있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7).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입시,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취업 등에 대해 상담할 기회를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성화고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진로와 취업 중 하나를 결정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진로문제는 중요하다.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기보다는 학업성적에 따라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향희, 2007).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특성화고의 역할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나 진출분야는 전공계열과 다르거나 학습능력과 상관없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성화고의 동일 계열 취업 위주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진로 간에 차이를 현명하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수준의 적절한 진로 상담과 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고교졸업 후에 직업사회로 진출을 하는 특성화고는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일반계고와 교육목표에서부터 교과과정, 인재상이 다르며 취업 등 진로 상담의 필요성은 논의의 여지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졸 취업의 활성화와 선 취업 후 진학 제도의 확대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로 상담의 중요성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수가 확대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교과교실제와 집중 이수제의 본격 도입에 의해 기존의 담임교사와 진학 부장교사(3학년 부장) 중심의 진로·진학 지도에 한계점과 고교 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에 따른 진로진학상담 수요가 급증하면서 진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에 진로 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교육부는 중·고교 정교사 자격에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기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2. 06. 15). 진로 상담의 중요성만큼 학생들의 진로에 실제적 기

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과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하여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인식과 진로 상담의 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학생들의 요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이 나아갈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학 동기와 진로 의식은 어떠한지를 조사 분석한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요구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배경 변인별로 진로 상담 운영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요구의 차이를 조사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특성화고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나.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은 학생들의 전 생애에 걸쳐 진로선택과 관련된 진학과 직업 선택에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 계획, 의사결정능력을 돕는 체계적인 상담활동이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계열 또는 다른 지역의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 실태와 요구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진로 상담의 개념 고찰

진로 교육은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영역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진로와 직업'과목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수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배치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짐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교육부는 '진로와 직업'교과를 담당하면서 맞춤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진학 경험이 많은 교사를 선발하여 진학지도를 총괄하는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계획을 발표하였다(박종학,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수행하게 되는 진로 상담의 개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진로 상담 정의 문헌 고찰

연구자(연도)	정의
Super(1951)	개인으로서 하여 자기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적절하고 잘 통합된 자아상을 갖고 이를 수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것을 현실검증해 보고 그 자체에 만족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현실화하는 것을 조력하는 과정
김충기 (1995)	학생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치밀한 방법과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자기 일생의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문제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수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
이현림 외 (2003)	내담자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상담의 종합과정
송병일, 박영주 (2009)	진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사이의 대면 관계를 통해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정의적 측면에 대한 성장은 물론 진로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의 과정

학교상담의 영역에서 보면 진로 상담이 그 원리나 방법 자체는 일반상담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진로 상담이 직업, 여가, 진학 등의 측면을 정서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된다. 이 연구에서 진로 상담은 학생들의 전 생애에 걸쳐 진로선택과 관련된 진학과 직업 선택에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 계획, 의사결정능력을 돕는 체계적인 상담활동이다.

2. 진로 상담의 운영 현황 고찰

선행연구는 첫째,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관련 연구, 둘째, 학교 상담의 운영 형태와 요구 관련 연구, 셋째, 특성화고에서의 진로 지도 및 상담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진로 교육 및 상담 관련 연구에서는 아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소질을 살려 올바른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시기의 진로 교육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일과 직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로 교육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충기, 2000; 배은혜, 2007). 또한 진로 상담이 개개인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알맞게 지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적인 단계로 진로 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향희, 2007).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학교 상담의 운영 형태와 요구 관련 연구에서 박지숙(2014)은 저소득층 대상 진로 상담 프로그램 선행연구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고, 한 회기 진행시간이 60~90분이라는 특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 수업 시간에 적절한 40분으로 한 회기 진행시간을 구성하고 진로장벽 인식 및 진로발달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송태순(2014)은 중등학교 학교 상담의 운영 실태 및 요구 연구에서 중등학교 학생(중1~고2)을 대상으로 상담 횟수, 시간, 소요시간, 장소, 방법, 주제, 담당교사 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 상담의 정기 횟수 및 희망하는 회수만큼, 상담 시간은 수업 시간 또는 별도의 상담 시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 할애, 상담 장소는 전용 상담실에서, 상담 방법을 지도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심리적 기법으로, 상담 주제는 학생이 스스로 정한 주제로, 상담 교사는 친밀하고 전문 상담교사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외형적인 상담과 상담교사, 상담실이 아닌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친구처럼 옆에 있어 주는 학교 상담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의 진로 교육 및 진로 상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상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부분 진학과 취업에 대한 갈등 등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 상담이나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김선목, 2000), 특히 특성화고의 진로지도는 직업 체험, 진로 상담과 같은 체험 활동은 다른 활동보다 진로성숙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김강호, 2009). 오현석 등(2010)은 진로 교과와 진로 체험하는 학교 변인은 가정 만족도, 결손 가정, 가족 활동인 가정 변인보다 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교의 진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나 일반계 고교생보다 특성화 고교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특성화고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만큼 내실 있는 진로 상담제 운영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에서 진로지도 및 진로 상담의 필요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에 대한 운영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진로 상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이 나아갈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모집단은 대전시 특성화고 11개교이며 학생 수는 총 10,429명이며, 계열별 학교수는 공업계열 6개교, 상업계열 4개교, 농업계열 1개교이다(<표 2> 참조). 모집단의 표집 방법은 특성화고 학교 계열에 따라서 진로 상담에 인식이 다를 것으로 전제하고 공업계열, 상업계열, 농업계열을 모집단으로 층화하여 표집하는 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단, 농업계열은 1개교로 공업 및 상업계열과 모집단 및 표본의 차이가 커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표집집단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업 및 상업계열 특성화고 10개교이며, 학생은 각 학교당 40명씩(1개교당 1~2학년 인원) 총 40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조사 대상 모집단 및 표본 현황

구분	모집단*		표본	
	학교수(개)	학생수(명)	학교수(개)	학생수(명)
공업계열	6	10,429	6	240
상업계열	4		4	160
농업계열	1		-	-
계	11		10	40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의 특성화고 시·도별 학교 및 학생수 현황 참조(2013년 1월 검색). 계열별 인원수 현황은 기본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3>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계열	학교(개수)	배포(명)	회수(명)	회수율(%)	유효분석 수(%)
공업계열	6	240	240	100.00	363 (90.75)
상업계열	4	160	131	81.88	
계	10	400	371	92.75	

2. 조사 도구

이 연구의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박인화, 2001; 김양훈, 2006; 류성희, 2007; 방형욱, 2009; 박종학, 2012)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5개의 영역 33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 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문항 형태
1	기초 사항	4	1-4	선다형
2	특성화고 진학동기	4	5-8	
3	진로 의식	3	9-11	5점 척도, 선다형
4	진로 상담 실태	12	12-23	선다형
5	진로 상담 요구	10	24-33	5점 척도, 선다형
계		33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설문조사 도구는 교육전문가 2인에게 연구 내용에 따른 내용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 수정·보완하고, 이를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2012년 12월 ~ 2013년 2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각 특성화고의 진로진학상담부장 또는 진로진학상담 지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20.0(for window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 분석 처리 방법은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화고 입학 동기와 진로 의식,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요구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 상담 운영 요소의 중요도 분석은 기술통계 분석하였고, 집단별 요구의 차이 분석은 교차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학 동기와 진로 의식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의식 및 진로 계획은 특성화고 입학 동기, 진로에 대한 인식

및 계획을 조사·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계열	남자		여자		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공업계	203	89.43	35	25.74	238	65.56
상업계	24	10.57	101	74.26	125	34.44
계	227	100.00	136	100.00	363	100.00

성별 비율은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25%가 더 많았고, 계열별 응답자 비율은 공업계는 남학생이 89.43%, 상업계는 여학생이 74.26%로 성별 비율 차이가 크게 보였다.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동기를 질문하였고, 응답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특성화고 입학 동기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진학 결정 시기	중학교 입학 이전	8	2.20
	중학교 1학년	17	4.68
	중학교 2학년	24	6.61
	중학교 3학년 1학기	140	38.57
	입학원서 교부기간 중	150	41.32
	기타	24	6.62
	계	363	100.00
진학동기	적성과 취미	63	17.36
	학교 성적	92	25.34
	가정형편	13	3.58
	졸업 후 취업이 용이	120	33.06
	대학진학이 일반계 보다 용이	49	13.50
	기타	26	7.16
	계	363	100.00
진학 결정시 영향을 준 사람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함	168	46.28
	부모님	62	17.08
	친구	27	7.44
	중학교 선생님	86	23.69
	기타	20	5.51
	계	363	100.00

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결정시기는 '입학원서 교부기간 중'(41.32%) 및 '중학교 3학년 1학기'(38.57%)에 가장 많이 결정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퇴 후', '인문계 고교 진학 후'등도 있었다. 진학 동기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이 용이'(33.06%)와 '학교 성적'(25.34%)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은 '인문계 수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취업을 빨리하기 위해' 등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약 80%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고등학교를 결정하였고,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특성화고에 진학하였으며

중학교 성적이 특성화고 진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화고 진학 결정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함'(46.28%)과 '중학교 선생님'(23.69%)순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진학 결정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입학결정시기에 중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은 '특성화고 재학 중인 선배', '홍보오신 고등학교 선생님', '형', '언니'등의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진로 선택시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의존도가 크며 이에 반하여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여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성화고 선택이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정도, 특성화고 전공 만족도, 직업 선택의 중요 요소에 대한 진로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의식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특성화고 선택이 진로에 미친 영향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	108	29.75
	조금 영향을 주었다	122	33.61
	보통이다	111	30.58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13	3.58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9	2.48
	계	363	100.00
자신의 학과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2	8.82
	만족한다	146	40.22
	보통이다	152	41.87
	약간 불만이다	20	5.51
	매우 불만이다	13	3.58
	계	363	100.00
직업 선택 중요 요소	경제적 보수	67	18.46
	적성과 흥미	172	47.38
	장래성	26	7.16
	안정성	88	24.24
	사회적 명성과 인정도	10	2.76
	계	363	100.00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의식을 보면 특성화고 선택이 진로에 '조금 영향을 주었다'가 가장 많았고, 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다', '만족한다'의 응답이 높게 파악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성과 흥미' 응답이 높았으며, '안정성'이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경제적 보수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 실태 및 요구

운영 실태 조사는 특성화고에서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178명)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는 전체 학생들(363명)에게 실시하였다. 응답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 실태 및 요구

구분	항목	현재 운영 실태		향후 요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진로 상담자	진로진학상담교사	63	35.41	162	44.63
	담임교사	66	37.15	60	16.53
	교과담당교사	18	10.12	21	5.79
	전문상담교사	24	13.53	108	29.75
	기타	7	3.79	12	3.30
	계	178	100.00	363	100.00
진로 상담 내용	자신에 대한 이해	27	15.23	61	16.80
	진로선택(진학과 취업)	91	51.16	122	33.61
	진학지도	13	7.21	42	11.57
	취업지도	24	13.59	101	27.82
	직업지도	15	8.40	30	8.27
	기타	8	4.41	7	1.93
계	178	100.00	363	100.00	
연평균 진로 상담 횟수	없음	31	17.42	13	3.58
	연평균 1~2회	104	58.43	141	38.84
	연평균 3~4회	28	15.73	153	42.15
	연평균 5회 이상	15	8.42	56	15.43
	계	178	100.00	363	100.00
진로 상담 시간	20분 이내	54	30.34	70	19.28
	40분 이내	54	30.34	157	43.25
	60분 이내	47	26.40	103	28.37
	80분 이내	6	3.37	17	4.68
	80분 이상	17	9.55	16	4.42
	계	178	100.00	363	100.00
진로 상담 장소	교무실	30	16.85	15	4.13
	교실	45	25.28	27	7.43
	상담실	67	37.64	256	70.53
	특별실	27	15.17	59	16.25
	교정	0	0	1	0.28
	기타	9	5.06	5	1.38
계	178	100.00	363	100.00	
진로 상담 방식	선생님과 1대1 대면 상담	96	53.93	268	73.83
	반 전체 집단 상담	62	34.84	48	13.22
	부모님과 동반 상담	2	1.12	23	6.34
	전화 상담	1	0.56	4	1.10
	인터넷 상담	8	4.49	4	1.10
	SNS 상담	5	2.81	7	1.93
	기타	4	2.25	9	2.48
계	178	100.00	363	100.00	
진로	진로 상담부서 상담활동	35	19.66	112	30.85
	'직업과 진로' 교과시간	55	30.90	58	15.98

상담 형태	진로정보실 자료 활용	24	13.48	81	22.31
	담임과의 상담활동	38	21.35	67	18.46
	인터넷 진로 상담 활용	5	2.81	11	3.03
	특강형태 집단 상담활동	16	8.99	22	6.06
	기타	5	2.81	12	3.31
	계	178	100.00	363	100.00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 상담자는 ‘담임교사’이며 다음은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구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실태에서 높은 응답을 보인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진로 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에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상담내용의 실태와 요구에서 ‘진로선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진로선택에 대한 진로 상담내용을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두 번째로 응답이 높았으나 요구에서는 ‘취업지도’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아 취업지도에 대한 상담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진로 상담의 연평균 횟수는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요구에서는 ‘연평균 3~4회’가 응답률이 높아 진로 상담을 3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상담 장소로는 주로 ‘상담실’(37.64%), ‘교실’(25.28%)에서 이루어졌으며 기타응답은 ‘복도’도 있었다. 요구로는 학생 70.53%가 상담여건을 갖춘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였다. 진로 상담 방식은 ‘선생님과 1대1 대면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반 전체 집단상담’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진로 상담 형태는 ‘직업과 진로 교과시간에’, ‘담임과의 상담 활동’이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진로 상담부서의 상담활동’과 ‘진로(또는 취업)정보실의 자료 활용’이었다. 실태와 요구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학생들은 직업과 진로 교과시간보다는 진로 상담부서를 통하여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형태를 갖춘 상담형태를 요구하였다.

진로 상담 운영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진로 상담의 운영 요소에 대한 중요도

구분	N	M	SD	순위	구분	N	M	SD	순위
상담 내용	363	4.15	0.957	1	상담 방법	363	3.53	1.054	5
상담 장소	363	3.76	0.988	2	하루 상담 시간	363	3.30	1.036	6
상담 시기	363	3.67	1.003	3	상담자의 연령	363	3.18	1.213	7
상담 분량	363	3.66	0.995	4	상담자의 성별	363	3.11	1.309	8

학생들은 진로 상담의 운영 요소 중요도는 모두가 보통(M=3.00)이상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상담 내용’이 4.15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유의견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진로 상담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상담 내용이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상담에 대한 많은 준비와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3. 집단 간 진로 상담 운영 요소 중요도와 요구의 차이

가. 진로 상담 운영 요소의 성별, 계열별 차이

진로 상담의 운영 요소 중요도가 성별과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과 계열 간 진로 상담의 운영 요소 중요도 차이

구분			상담 내용	상담 방법	상담 장소	상담 분량	상담 시기	상담 시간	상담자	
									성별	연령
성별	남자	M	4.03	3.49	3.63	3.61	3.62	3.32	3.07	3.16
		SD	1.025	1.116	1.016	1.037	1.041	1.063	1.347	1.241
	여자	M	4.31	3.60	3.95	3.75	3.76	3.26	3.12	3.18
		SD	.834	.991	.917	.964	.960	1.034	1.292	1.205
	t	-2.800**	-.945	-3.044**	-1.272	-1.312	.542	-.374	-.165	
p	.005	.345	.003	.204	.190	.588	.709	.869		
계열	공업	M	4.02	3.44	3.66	3.60	3.62	3.29	3.06	3.11
		SD	1.040	1.105	1.015	1.075	1.049	1.095	1.321	1.250
	상업	M	4.37	3.70	3.96	3.78	3.79	3.30	3.16	3.27
		SD	.752	.975	.908	.869	.928	.968	1.331	1.175
	t	-3.321**	-2.235*	-2.842**	-1.600	-1.554	-.133	-.694	-1.179	
p	.001	.026	.005	.110	.121	.895	.488	.239		

* $p < .05$, ** $p < .01$

진로 상담의 운영 요소에 대한 9개의 문항 중 '상담 내용'과 '상담 장소'가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계열 간에는 '상담 내용, 방법, 장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상담 내용과 장소는 성별 및 계열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나. 진로 상담 요구의 성별, 계열별 차이

진로 상담 요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계열별은 4개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운영 요소의 분석 결과는 <표 11~14>와 같다.

<표 11> 계열별 진로 상담자 요구의 차이

구분	진로진학 상담교사	담임 교사	교과담당 교사	전문상담 교사	기타	전체	통계치
계열	공업 (38.30)	49 (20.85)	22 (9.36)	66 (28.09)	8 (3.40)	235 (100.00)	$\chi^2=18.241^{**}$ df=4 p=.006
	상업 (50.78)	14 (10.94)	1 (0.78)	43 (33.59)	5 (3.91)	128 (100.00)	
계	155 (42.70)	63 (17.36)	23 (6.34)	109 (30.03)	13 (3.58)	363 (100.00)	

**p<.01

계열과 선호하는 진로 상담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상담자로서 '진로 진학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교사'에 대하여 공업계열 학생 66.39%가 선호하였고, 상업계열은 84.37%가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상담자는 계열에 상관없이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보다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전문 상담 교사를 선호하였으며 이는 송태순(2014)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2> 계열별 진로 상담의 내용 요구의 차이

[단위: 빈도(%)]

구분	자기 이해	진로 선택	진학 지도	취업 지도	직업 지도	기타	전체	통계치
계열	공업 (14.47)	87 (37.02)	26 (11.06)	57 (24.26)	24 (10.21)	7 (2.98)	235 (100.00)	$\chi^2=20.750^{**}$ df=5 p=.001
	상업 (24.22)	24 (18.75)	21 (16.41)	43 (33.59)	7 (5.47)	2 (1.56)	128 (100.00)	
계	65 (17.91)	111 (30.58)	47 (12.95)	100 (27.55)	31 (8.54)	9 (2.47)	363 (100.00)	

**p<.01

진로 상담의 내용에 대한 계열간에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공업계열은 '진로 선택(진학과 취업)'을, 상업계열은 '취업 지도'를 선호하였다. 이로서 공업계열은 진로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의사결정을 돕는 상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상업계열은 진로선택과 더불어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지도 진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3> 계열별 진로 상담방식 요구의 차이

[단위: 빈도(%)]

구분	선생님과 대면 상담	집단 상담	부모님과 동반 상담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SNS 상담	기타	전체	통계치	
계열	공업	157 (66.81)	41 (17.45)	16 (6.81)	4 (1.70)	6 (2.55)	5 (2.13)	6 (2.55)	235 (100.00)	$\chi^2=19.019^{**}$ df=6 p=.004
	상업	105 (82.03)	5 (3.91)	11 (8.59)	1 (0.78)	0 (0.00)	2 (1.56)	4 (3.13)	128 (100.00)	
계	262 (72.18)	46 (12.67)	27 (7.44)	5 (1.38)	6 (1.65)	7 (1.93)	10 (2.75)	363 (100.00)		

** $p<.01$

계열별 진로 상담방식 요구간에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업 계열 학생들은 '반 전체 집단 상담의 경우'를, 상업 계열 학생들은 '부모님과 동반상담'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 상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로 상담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 14> 계열별 진로 상담형태 요구의 차이

[단위: 빈도(%)]

구분	진로 상담부의 상담 활동	직업과 진로 교과시간	진로정보실의 자료 활용	담임과의 상담활동	인터넷 상담	특강형태의 집단 상담 활동	기타	전체	통계치	
계열	공업	55 (23.40)	47 (20.00)	51 (21.70)	48 (20.43)	9 (3.83)	17 (7.23)	8 (3.41)	235 (100.00)	$\chi^2=25.047^{**}$ df=6 p=.001
	상업	55 (42.97)	8 (6.25)	33 (25.78)	21 (16.41)	2 (1.56)	5 (3.91)	4 (3.12)	128 (100.00)	
계	11 (30.30)	55 (15.15)	84 (23.14)	69 (19.01)	11 (3.03)	22 (6.06)	12 (3.31)	363 (100.00)		

** $p<.01$

진로 상담형태 요구는 계열별 집단 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업계열은 '진로 상담부의 상담 활동'과 '직업과 진로 교과시간', '진로정보실의 자료 활용', '담임과의 상담활동' 등의 형태를 다양하게 선호하였다. 상업계열 학생들은 '진로 상담부의 상담 활동' 형태를 선호하였고, 공업계열과 달리 '직업과 진로 교과시간'에 이루어지는 상담 형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업계열 학생들은 공개 또는 비공개된 면대면 상담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상업계열 학생들은 비공개된 상담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인식에 대한 진로 상담의 운영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설문 조사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른 특성화고 진로 상담 운영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학 결정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의 시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때의 진로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시절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학생을 특성화고의 입학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3 시기에 진로 상담교사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적성과 소질을 찾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진로지도와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중3 담임교사의 진로 상담 역량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의 진로 상담이 주로 담임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행정 보조인원 지원, 상담교사 확충, 전문상담연수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배경 변인 집단 간 요구에서 상담 내용과 장소가 성별로, 상담에 대한 내용, 장소와 방법은 계열간의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 상담 운영 요소 중 상담자, 상담 내용, 상담 방식, 상담 형태는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계열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공 계열과 성별간의 요구를 토대로 상담 내용, 상담 방법, 진로 상담 형태 등을 달리하는 일대일 상담, 진로 동아리, 학부모 동반 진로 상담, 진로정보실 활용, 집단프로그램의 상담 및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s In Education; NIE)을 활용한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진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연구의 결론을 통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교생은 일반계 고교생과 달리 취업과 진학이라는 큰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진로 교육 역시 두 트랙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진로 상담 운영과 관련한 요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성화고 학교 현장의 인·물적 환경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갖춘 진로 상담 운영제도 수립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2.06.15). 2013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보도자료.
- 김강호(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학회연구**, 28(4), 183-200.
- 김병숙, 손민아(2005). 진로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자기 효능감 분석. **한국진로교육연구**, 18(2), 172-198.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7). **학교진로 상담**. 학지사.
- 김선묵(2000). **상업계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양훈(2006). **공업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 변화와 진로 교육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김충기(1995). **미래를 한 진로 교육**. 양서원.
- 김충기(2000).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 동문사.
- 김향희(2007). **상업정보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류성희(2007). **특성화교 학생들의 계열별 교육에 따른 진로 의식 차이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인화(2001). **중학교 진로 상담 활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종학(2012). **진로진학상담교사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요구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지숙(2014).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경험분석 : 진로발달,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방형욱(2009).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만족도와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배은혜(2007). **특성화교의 진로 지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송병일, 박영주(2009). **직업진로설계와 취업전략**. 학지사.
- 송태순(2014). **중등학교 상담의 운영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오현석 외(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이현립 외(2003). **현대진로 상담**. 학지사.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Abstract>

Research on the Status and Needs of Career Counseling based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in Daejeon

Seon-Ju Yang*, So-Yeon Kim**, Kyu-Nyo Le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career counseling based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in Daeje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career counseling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hrough the evaluation of current situation and student's need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students decided their admission into a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when they were three grades in middle school. It indicates that career counseling teacher plays important roles during that time.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career counseling teachers and to develop the various programs to seek student's aptitude and talent from the period of middle school.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career counseling teachers and to develop the various programs to seek student's aptitude and talent from the period of middle school.

Second, since most of career counseling takes place primarily with class teacher, professional counseling education for class teachers is required. It also needs to expand the specialized counselors to reduce the overburden of class teachers and develop various counseling programs.

Thir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need the specialized counseling programs according to their major. Effective group counseling programs as well as one-on-one counseling programs which can help the student's career decision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career counseling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ence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sy@cnu.ac.kr

*** Correspondence : Visiting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nlee@cnu.ac.kr